



# Contents

|                                                             |           |
|-------------------------------------------------------------|-----------|
| <b>1 이슈와 진단(박인성 · 유광철)</b>                                  | <b>02</b> |
| • 중국 ‘13차 5개년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 03        |
| <b>2 해설자료</b>                                               | <b>20</b> |
| •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1)<br>– 개혁개방 이전 : ‘1·5계획’ ~ ‘5·5계획’ | 21        |
| <b>3 허베이 산둥통신(유광철 · 박인성)</b>                                | <b>30</b> |
| • 시진핑 2016년 신년사                                             | 31        |
| • 베이징의 미래 도시 정책                                             | 33        |
| • 허베이성 식품의약품 안전 감독 업무 강화                                    | 36        |
| • 산둥성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 전자정부 사업 추진                                | 39        |
| • 옌타이시 푸산구 13.5 계획                                          | 40        |
| • 운전면허시험 독학 응시 시행                                           | 44        |
| <b>4 도, 시, 군 대(對) 중국 교류 동향</b>                              | <b>46</b> |
| • 태안군 · 산둥성 일대 지방외교 추진                                      | 47        |
| • 보령시 – 후베이성 마청시 방문                                         | 50        |
| • 당진시– 랴오닝성 단둥 한중 국제 무역 박람회 추진                              | 52        |
| <b>5 충청중국포럼 소식</b>                                          | <b>55</b> |
| • 제 7차 충청중국포럼 ·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br>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 56        |
|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 현황<br>– 발간목록                                  |           |

이슈와  
진단

# 중국 '13차 5개년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박인성 · 유광철



## ◆ 중국 ‘13차 5개년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 1. ‘13·5계획’의 개념과 특징

- 올해는 중국정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분야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인 ‘13차 5개년계획’(十三五规划: 2016~2020, 이하 ‘13·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 ‘13·5계획’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이고, 계획기간은 2016~2020년이다.
  - 1949년 10월에 출범한 중공정권은, 1953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고, 1953년부터 시작된 1차5개년계획(一五計劃: 1953~57)부터, 대약진,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의 정치경제적 파동을 겪으면서, 13차5개년계획(十三五规划: 2016~2020)까지 이어져 왔다.
  - 중국정부는 2·5계획(1958~62)의 계획기간 종료후, 3년간을 ‘대약진(大跃进)’과 ‘인민공사화 운동’의 충격과 피해를 조정하고, 다음 5개년계획, 즉 ‘3·5계획(三五計劃: 1966~70)’ 수립 준비를 위한 과도기로 설정했다. 따라서 ‘3·5계획’ 기간은 1966년부터 5년간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올해부터 시행되는 ‘13·5계획’(2016~2020)에 이르기까지 매 5년 계획기간을 단위로 하는 국가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다. (역대 5개년계획의 수립배경과 주요 내용, 특징은 다음 난에 정리했음.)
- 작년(2015년) 10월 26~29일 기간중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공 18기5중전회(18기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에서, ‘‘13·5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심의, 통과되었고, 11월 3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 중국정부는 상기 ‘13·5계획 건의’를 기초로 ‘13·5계획강요(十二五规划纲要)’ 초안

을 작성하여, 올해 3월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양회(兩會)기간중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5월경에 ‘13·5계획’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각 부문과 성(省), 직할시, 자치구를 포함한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13·5계획’ 수립작업을 진행 중이다.

- ‘13·5계획’(2016~2020)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선출·출범한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리커창(李克強) 국무원총리 체제하에서 수립되는 최초의 5개년계획이다. 따라서, 시진핑체제하에서 향후 5년간 중공과 중국정부가 채택 추진할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세계 각국이 ‘13·5계획’(2016~2020)에 담길 전략과 정책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 상기 ‘13·5계획 건의’ 내용중 핵심은, ‘13·5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전면 건설·완성 목표를 강조하고, “전면(全面)”의 개념을 확장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3·5계획 건의’에 담긴 주요 내용은, ①소강사회(小康社會) 전면 건설·완성, ②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와 이념 확정, ③창신발전과 발전의 질과 효익(效益) 제고, ④협조발전 견지와 평형발전구조 형성, ⑤녹색발전과 생태환경 개선, ⑥개방과 합작 실현, ⑦인민복지 증진, ⑧계획실현을 위한 당의 영도(領導) 강화, 이렇게 8개 주제이다.

- 중공 통치하의 중국에서, ‘소강사회(小康社會)’ 개념을 최초로 제기된 때는, 1987년 중공 13기 전국대표대회 시기이다. 즉,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장기적 현대화발전전략을 3개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3보 걸음(三步走)”으로 제시했다.

- “제 1보”는 춥고 배고픔 해결(溫飽)로 대표되는 기본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고, “제 2보”는 인민의 일상생활상의 기본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소강사회(小康社會)’ 단계에 도달하는 단계이고, “제 3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공산주의 복지를 실현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 건설 단계라 했다.
- “제1보”는 1981년부터 10년 안에 GDP를 1980년 대비 2배로 증가시키고, “제2보”는

1991년부터 10년 안에 다시 GDP를 2배로 증가시켜, 소강수준에 도달하고, “제3보”는 21세기부터 ‘사회주의 현대화’와 ‘대동사회(大同社會)’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 이후, 장쩌민(江泽民)-주룽지(朱鎔基),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強) 체제를 거치면서,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목표와 추진은 다음과 같이 변화, 발전해 왔다.

● 덩샤오핑을 계승한 장쩌민(江澤民)은, 중공 15차전국대표대회(1997. 9)에서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역사적 임무로 제시하고, 덩샤오핑의 “3보(三歩)”를 발전시킨 “신3보(新三歩)” 전략을 발표했다.

- “제1보”는 2010년까지 10년간 GDP를 2000년 대비 2배로 증가시키고, “제2보”는 다시 향후 10년간 GDP를 2배로 증가시키고, “제3보”는 2050년 까지 GDP를 2배 가까이 증대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 이어서 2002년 11월, 중공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 당시 총서기가 “소강사회”를 구체화한 10대 수치지표를 제출했다. 10대 지표는 1인당 GDP(3000달러), 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18,000위안),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8000위안), 엔겔지수(40%미만), 도시주민1인당 주택면적(30㎡), 도시화율(50%), 주민가구당 컴퓨터보급률(20%), 대학진학율(20%), 인구1000명당 의사수(2.8명),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율(95%이상)이다. (2015년, 중국정부는 이 지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 후진타오(胡錦濤) 집권시기에는, “소강사회 전면 건설”의 “전면(全面)”의 개념을 확장·보완했다.

- 2007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17차 전국대표대회(2007. 10)에서,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위한 하위수단 목표를, 양호하고도 빠른(又好又快) 성장,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 제고, 인민생활의 향상과 소비주도형 성장이라 제시했다.
- 이어서 2008년 6월에, 1인당 GDP와 같은 양적 측면의 지표 외에, 조화(和解)사회, 인민생활수준, 민주 및 법치, 문화교육, 생태환경보호 등 6개 분야에서 23개 지표를 제시했다.

-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 선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정부에서는, “중국꿈(中國夢)”과 “두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의 목표 제시와 함께, “소강사회 전면 건설” 목표중 “전면(全面)”과 “건설(建設)”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건설”을 “건설·완성(建成)”으로 수정 보완했다.
  - “두개의 100년”중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일인 1921년을 기준으로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 전면 건설·완성” 목표를 달성하고, 또 하나의 “100년”은, 중공 정권이 정식 출범한 1949년 기준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대동사회(大同社會)’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 ‘13·5계획’의 핵심목표가 된 시진핑정부의 “소강사회 전면 건설·완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6대 목표는, ①경제발전방식 전변(轉變), ②균형,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 ③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의 공헌률 대폭 제고, ④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동시 추진과 산업의 현대화 및 신(新)발전체계 구축, ⑤구역협조발전체계 구축, ⑥신개방형 경제 육성과 대외개방 수준 및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 단, ‘13·5계획 건의’에 담긴 소위 “두 번째 100년”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중국 정부가 이제까지 이룬 성과에 대한 자신감 표출과 함께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 실현과 위대하게 부흥하는 중화민족의 중국꿈(中國夢) 실현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기초를 다진다.”
- ‘13·5계획 건의’에서는, 주요 목표로 설정된 “소강사회(小康社會) 전면 건설·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히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인민주체지위 견지. 인민은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역량이고,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의 양호한 실현, 보호 발전의 근본목적이다. 필히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발전을 발전의 출발점과 발판으로 하고, 인민민주를 발전시킨다.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호하고, 인민의 평등참여, 평등발전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한다.
  - 과학발전 견지. 발전은 확고부동한 도리(硬道理)이고, 필히 과학발전이어야 한다. 중국

은 여전히 그리고 향후에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 상태에 있을 것이고, 기본국정과 사회의 주요 모순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필히 경제건설 중심을 견지하고, 실제에서 출발하여, 발전의 새로운 특징을 파악하고, 구조개혁 강도를 강화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轉變)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질, 더 높은 효율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 개혁심화 견지. 개혁은 발전의 강대한 동력이다. 필히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완비와 발전, 국가치리(治理)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총목표로 추진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중 결정적 작용을 하고, 정부역할이 더욱 양호하게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한다.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하고, 각방면 체제·기제(機制)를 조속히 완비하고, 과학발전에 불리한 일체의 체제·기제상의 장애를 타파하고, 발전을 위한 지속적 동력을 제공한다.
- 법에 의한 통치 견지. 추호의 동요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法治)의 길을 가야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고, 과학적으로 입법하고, 엄격히 집행한다. 공정한 사법, 전인민 준법을 추진하고, 법치경제와 법치사회를 조속히 건설하고, 경제사회발전을 법치궤도에 진입시킨다.
- 국내 및 국제 “2개 대국(大局)”의 통합 견지. 전방위 대외개방은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필히 국가의 문을 열어 놓고 건설하고, 국내에 발을 딛고, 국내의 자원, 시장, 제도 등의 우세를 충분히 운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와 국제간 경제연동효과를 중시하고, 외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두 개의 시장과 두 종류의 자원을 더 양호하게 이용하고, 상호이익을 추동하고 공동승리하고, 공동발전한다.
- 당의 영도(领导) 견지. 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최대 우세이고, 경제사회의 지속건강발전을 실현하는 근본정치보증이다. 필히, 당의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부단히 증강하고, 당의 집정능력과 집정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 2. '13·5계획'의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 '13·5계획' (2016~2020) 수립작업은 2014년 4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쉬샤오스(徐绍史)가 '전국 13·5계획 수립업무 TV전화회의'를 개최하고, 계획수립 작업 발동(启动)을 선포하면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 이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환경정비, 주택보장체계 건설, 빈곤층 지원, 탈빈곤대책 연구를 포함한 전기(前期)연구주제 25개를 공개 선정하고, 공개입찰방식으로 대학과 과학연구기구, 대형기업 및 업종협회 연구기구 등에 전기(前期)연구를 위탁했다.
  - 전기(前期)연구 추진과 함께, 기본사로(基本思路) 작성, 연관계획 수립, 계획입법 추진 등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했다.
- '13·5계획' (2016~2020) 수립작업은, '12·5계획' (2011~2015) 기간중 취득한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작업부터 시작되었다.
  - '12·5계획' 기간중 중국은 경제총량 세계 2위 지위를 굳혔고, 13억이 넘는 인구의 1인당 GDP가 7800달러 내외가 되었다. 또한, 3차산업 증가치의 GDP비중이 2차산업을 초과했고, 기반시설 수준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었고, 농업생산량도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5%에 달했고, 일부 주요 과학기술이 세계선진수준에 도달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2015년에 중국은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 연간 주요 경제성장목표를 원만하게 실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GDP 성장률 7%, 취업자 수 1,300만 명 증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4%, 국무원이 폐지 및 이양한 행정심사항목 139개, 전국 신규등록기업 1일평균 1만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고정자산투자 항목 280개, 총투자금액 2조 5,159억 위안 등.
- 2016년 11월에 발표된 '13·5계획 건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개 부분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부분]

- 제1장: 소강사회 전면 건설 · 완성 승리결정단계의 형세와 지도사상
- 제2장: ‘13 · 5계획’ 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목표와 기본이념,

### [제 2부분]

- 제3장: 창신발전 견지와 발전의 질과 효익(效益) 적극 제고
- 제4장: 협조발전 견지와 평형발전구조 적극 형성
- 제5장: 녹색발전 견지와 생태환경 적극 개선
- 제6장: 개방발전 견지와 합작 공동승리 적극 실현
- 제7장: 발전의 공동향유 견지, 인민복지 적극 증진,

### [제 3부분]

- 제8장: 당의 영도 강화 및 개선, ‘13 · 5계획’ 실현을 위한 견고한 보증 제공

#### ● 상기한 ‘13 · 5계획 건의’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 · 5계획’(2016 ~ 2020) 시기, 각방면 제도를 가일층 성숙시키고, 규격화한다. 국가정비체계와 정비능력 현대화를 진전시키고, 각 영역의 기초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인민민주를 전면 건설하고, 법치정부를 기본적으로 건설 · 완성한다. 사법(司法) 공신력을 현저히 제고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산권을 유효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 에너지 안전 축적제도를 완비한다. 도시공공교통, 홍수 및 농작물 침수방지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도시지하관망 개조공정을 실시한다. 전력, 전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시정 공용시설 등 자연 독점업종의 경쟁성 업무 개방을 가속화한다.
- 온라인 경제공간을 확대한다. “인터넷+”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전신보편서비스기제를 완비하고, 네트워크 제속(提速)비용을 낮추고, 차세대 인터넷망을 배치한다. 산업조직, 상업모델, 공급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창신(創新)을 추진하고, 인터넷에 기초한 각 유형별 창신을 지원한다.
- 대학과 과학연구기구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창신행 리더 인재에게 더욱 큰 인력과 물질

적 지배권, 기술노선 정책결정권을 부여한다. 지식가치 증가를 지향하는 분배정책을 실행하고, 과학연구인원의 성과수익 전환분에 대한 향유 및 분배비율을 늘리고, 인재에 대한 홍양·봉헌정신을 장려한다.

- 농촌토지 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토지소유권, 도급권(承包权), 경영권 분할방법을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토지경영권 유전(流转)을 추진하고, 신형 농업경영주체 양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신형 직업농민을 양성한다.
-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경지보호 마지노선(紅線)을 사수하고, 양식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곡물기본자급, 일상양식(口粮)의 절대 안전을 확보한다.
- 재세체제개혁 심화. 직권(事权)과 지출책임이 상호적응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중앙직권과 지출책임을 적절하게 강화한다. 각 방면의 적극성을 북돋우고, 세종(税种)별 속성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 획분(划分)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실체경제효율을 높인다. 공개, 투명, 건강하게 발전하는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주식과 채권발행거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직접융자비중을 높이고, 레버리지비율(杠杆率)을 낮춘다.
-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를 추진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 추진하고, 도시에서 안정적 취업과 생활능력을 갖춘 농업전이인구의 전가족 도시 전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또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고, 상주인구 모두 기본공공서비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에 진입 정착한 농민의 농촌토지도급권,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법에 의거해 자원 유상양도(有偿转让)토록 지원한다.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도시내 불량주택지구와 도시 및 농촌지구 위험주택에 대한 개조를 강화한다.
- 온라인 문화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내용 건설공정을 실시하고, 온라인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상 발전시키고, 온라인환경을 정화한다.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추동하고, 매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일군의 신행 주류매체를 육성한다.
- 국방과 군대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거한 엄격한 군부 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한다. 2020년에, 국방과 군대 개혁 목표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기계화, 정보화의

중대한 진전을 실현하고, 정보화전쟁승리 사명과 임무를 유효하게 이행할 수 있는 중국특색의 현대 군사역량체계를 구축한다.

- 인구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計劃生育)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인구발전전략을 완비하고, 인구노령화 대응행동을 적극 전개한다. 한 부부 두자녀 생육 허용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생식건강, 부녀와 어린이 보건, 탁아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 녹색청결생산을 지원하고, 전통제조업에 대한 녹색 개조를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산업체계 건립을 추동하고, 기업공예기술장비의 갱신□개조를 장려한다. 녹색 금융을 발전시키고, 녹색발전기금을 설립한다.
- 시현(市县)급 행정구를 단원(单元)으로 하고, 공간계획, 용도규제, 영도간부 자연자원 자산 이임시 심사, 차별화 업적평가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비체계를 건립한다.
- 교통운수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 공공교통 우선정책을 실행하고, 궤도교통 건설을 강화하고, 자전거 등 녹색통행을 장려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을 실시하고, 전동차 산업화 수준을 끌어 올린다.
-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물의 질과 양을 기준으로 생산과 도시를 정하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물값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절수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홍수자원 이용, 재생수 이용, 해수담수화공정을 실시하고, 국가지하수감측계통을 건설하고, 지하수 초과채취지구 종합정비를 추진한다.
- 환경정비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고정오염원 기업에 대한 배출허가제를 건립하고,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에 대한 감측감찰집행 수직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전국통일의 실시간 현장 환경감시통제시스템을 건립한다. 환경정보공표제도를 건립한다. 지구간 환경보호기구 건립을 모색한다. 환경보호 감찰순시를 실시하고, 환경보호 집행을 엄격하게 한다.
- 천연림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상업성 채벌을 전면 금지하고, 삼림면적과 축적량을 늘린다. 국토녹화과정에서 국유림구, 임장(林場)의 대동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퇴경환림 환초(退耕还林还草)를 확대하고, 초원보호를 강화한다. 큰 천연나무의 도시로의 이식을 엄금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평형, 금융안전, 경제안정성장을 촉진한다. 온라인(网络), 심해(深海), 극지(極地), 우주 등 신영역에 대한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
- 빈곤탈출 업무책임제를 실행한다. 빈곤탈출업무책임 평가를 강화하고, 빈곤 현(縣)에 대해 빈곤탈출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중앙과 성(省)급 재정보조투입을 증대시키고, 정책성 금융과 상업성 금융의 상호보완작용을 발휘케 하고, 각 유형의 빈곤지원자원을 정합(整合)하고, 빈곤보조개발의 새 자금원을 개척한다.
- 대학의 교학 수준과 창신 능력을 제고하고, 일부 대학과 학과를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 혹은 접근토록 하고, 현대 직업교육체계를 건설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합작을 추진한다. 학과전공 배치와 인재배양기제를 특화하고, 조건을 구비한 일반 학부대학을 응용형으로 전환한다.
- 노동과 학습의 결합, 학교와 기업 합작의 기술노동자 육성모델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형 학도제를 추진한다. 기술노동자 대우를 제고한다.
- 전민(全民) 보험참여계획을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법정인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한다. 자금조달기제를 완비하고, 정부, 기업, 개인 등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회보험비용을 적정하게 낮추고,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한다. 직공기초양로금의 전국통합을 실현하고, 기본양로금의 합리적 조정기제를 건립한다. 사회보험기금 투자통로를 확장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인다.
- 국유자본수익의 공공재정 납부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험기금 보충에 대체 조달한다.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직업연금, 기업연금, 상업양로보험을 발전시킨다.
- 도시 및 농촌 주민 대상으로 큰병(大病) 보험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의료보험 지불방식을 개혁하고, 의료보험비용을 통제한다. 개인의료장부를 개선하고, 진찰비용통합을 추진한다. 타성(他省) 외지에 정착한 퇴직인원의 입원의료비용 직접결산을 실현한다.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공익속성을 견지하고, 이익추구 기제를 타파하고, 의료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봉급제도를 건립한다. 사회역량으로 창립하는 건강서

비스업을 장려하고, 비영리성 민영병원과 공립병원 동등대우를 추진한다.

- 당 지도층 그룹의 지식구조와 전공구조를 특화하고, 정치성이 강하고, 전공을 이해하고, 대담하게 도전하고, 작풍(作風)이 바른 간부를 중점 육성, 선발하고,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간부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정치업적에 대한 시험 및 평가체제와 상벌기제를 완성(完善)하고, 각급 간부의 업무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북돋운다.
- 사회정비기초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인구기초 DB, 사회신용코드제도와 연관된 실명등기제도를 통일 건립한다. 사회신용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심리서비스체제와 소통기제, 위기간섭기제를 건립한다.

● 2016년 1월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올해(2016년) 선정한 개혁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부 간소화 개혁: 권력, 책임,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을 통해 행정·심사 권한 간소화 개혁 심화 추진, 정부투자조례 등 중요 입법사업 추진, 인터넷 심사제도 실시, 투자·자금조달체제 개혁 심화
-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 실시: 전력, 석유, 가스, 철도, 민항, 통신, 방위산업 등 중요 분야 혼합소유제 개혁실험항목 선정 및 실시, 전력, 석유, 천연가스, 소금 등 업종개혁 추진, 전력, 천연가스, 의료서비스 등 중점분야 가격개혁 및 가격형성기제 완비, 가격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및 국민 부담 경감 추진
- 중요 전략 구체화 실시: 일대일로(一帶一路), 장강경제벨트,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 전략, 신형도시화, 혁신발동, 발전체제·기제 전면(轉變) 및 보완, 생태문명 건설, 개방형 신(新)경제기제 조속 건설
- 상기 개혁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과잉생산 해소, 신규생산 억제, 환경보호법 엄격 집행, 정책지도 강화, 우수생산력 해외진출 독려 등 5대 조치를 추진한다.

●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13·5계획’ 수립과정을, 산둥성 지난시(濟南市) 스중구

(市中区)를 사례로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정식명칭은 ‘산둥성 지난시 스중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 강요(山东省济南市市中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이다.(이하 ‘강요’)
- 스중구(市中区)는 2014년초부터, 상기한 ‘강요’ 수립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区)의 경제사회 현황과 미래발전방향을 결합하고, 인터넷금융발전, 본사경제(总部经济) 발전, 전통기업에 대한 정보화 영향, 신형도시화 건설 등 11개 연구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 2015년 3월 중순, 스중구 구장(区长)이 ‘전구(全区) 강요 수립업무대회’를 개최하고, “스중구 ‘13·5계획강요’ 수립업무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고, 상관 구(区) 직할부문과 가도관사처(街道办事处)에 부문별계획(专项规划)과 연구과제수립업무를 안배하고, 각 단계 작업시간도 안배했다.
- 2015년 3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계획수립 중점부문을 방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부문별 계획과 연구과제성과를 수집했고, 또한 ‘강요’ 초고작성업무에 착수했다.
- 2015년 9월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지난대학(济南大学) 경제학원 전문가, 교수, 구(区)위원회 정책연구실, 구(区)정부연구실, 구(区)인민대표대회 대표, 구(区)정협위원, 그리고 전구(全区) 각 부문 및 가도관사처에 ‘강요’ 초고에 대한 수정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 2015년 10월23일, 구장(区长)이 15개 상관 구(区) 직할부문과 의견수집좌담회를 조직 개최했다.
- 2015년 10월30일, 부구장급 이상 간부들의 의견건의를 수렴했다.
- 2015년 11월 13일, 구(区)인민대표대회 주임회의에서 의견과 건의를 구했고, 이후, 반박 수정, 정리후 ‘스중구(市中区) 13·5계획강요’를 작성했다.



### 3. 충남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

-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13·5계획’ (2016~2020)은, 2002년 말 중공 18차대회에서 선출된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총리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중공과 중국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의 기조와 맥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정부는 작년(2015년) 11월 초에 발표된 ‘13·5계획 건의’를 기초로 ‘13·5계획 강요초안(綱要草案)’을 작성하여, 3월 양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거쳐, ‘강요(초안)’을 발표할 것이며, 이후 ‘전문가 논증’, ‘의견청취’, ‘심의비준’을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공작보고 시에 ‘13·5계획 강요’에 대해 설명하고, 전인대 심의, 비준을 거친 후 정식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13·5계획 강요’는, 국가 층차(層次) 외에도 각 성(省), 시(市), 구(區), 현(縣)급 지방정부에서도 각 층차별로 ‘13·5계획’(2016~2020) 수립작업이 진행중이다.
- 중국 ‘13·5계획 건의’ 내용 중,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주요 시사점을 주는 것은, 첫째, 신상태(新狀態)에 접어든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기조의 전변(轉變), 둘째,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지구 일체화 협동발전전략과 이와 연결된 거점도시와 발전축을 중국내에서 국외로 확장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추진동향, 셋째, 산둥,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 장쑤(江蘇), 톈진(天津) 5개 성(省)·직할시에서 추진 중인 해양경제 발전전략, 그리고 ‘3농’ 관련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발전방식을 혁신과 창신(創新)을 통한 질적 발전방식으로 전변(轉變)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소비와 내수시장의 비중은 커지고, 가공무역



과 중간재 수입 비중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변화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충남의 산업과 경제에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신상태' 중국이, 산업구조 혁신과 승급을 추진하면서, 충남의 주요 대(對)중국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빠른 속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신상태'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와 서비스상품 수출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도 '공장'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요소주도형 투자'에서 '충남 특색'의 산업 경쟁력에 기반을 둔 특화전략상품 개발 등 '충남형 신상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 외에, 관광과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신상태'와 '신사고'가 요구된다.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내 부유층과 신흥 중산층을 대상으로, 충남 특색의 문화관광체험, 생태·휴양관광 인프라 조성, 홍보마케팅 방면에서 대응전략을 수립이 시급하다.
- 충남도와 각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면서, 중국내 부유층과 신중산층을 겨냥한 출국(出境)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충남의 유기농,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의 중국내수시장 개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지구는 '13·5계획 건의'에 포함된 '3개 지지구(支撐区)' 중에서도 중점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 '3대 지지구(支撐区)'란,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지구'외에, 성장거점과 발전축을 대외로 확장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그리고 '장강 유역경제지대(长江流域经济带)'를 지칭한다.
- 충남의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지구가 중국의 중요한 내수 소비시장권으로 급속히 성장, 부상하고 있으며, 이 지구의 산업구조 조정 진행과정에

서 중국정부가 전자상거래, 환경보호관련산업, 해운, 관광, 문화 등 업역에서 신규 협력 유망분야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충남도는 중국의 황하이(黃海)·보하이(渤海) 연해지구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과 ‘징진지(京津冀)’지구내의 허베이성(河北省)과 20여년간 유지해 온 자매결연관계를 적극 활용하면서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도청을 서해안 내포지구로 이전한 후, 2013년 7월, 해양수산국을 설치하고, ‘해양충남’ 가치를 내걸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12·5계획’에 이어 ‘13·5계획(2016~2020)’에서도 해양관련정책을 중시하면서,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는 중국의 해양경제발전 추진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중국의 해양전략은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범위를 육지부(陸域)에서 해역(海域)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2007년 10월, 중공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산업 발전과 현대 산업체계 구축” 방침을 제출하고, 이어서 2009년 4월에, 당시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가 산둥성 시찰 시에, “해양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고, 해양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해양우세산업을 육성하고, 산둥반도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국가계획의 지침과 함께, 지역별로는, 산둥성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 저장성(浙江省) 해양발전시범구, 광둥성 해양경제종합개발시험구, 푸젠성(福建省) 해협남색경제시험구, 텐진시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단, 중국 국가전략과 산둥성이 수립 추진중인 ‘남색경제 발전전략’으로부터 적실한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는, 내용별 층위와 층차를 충남의 지역공간규모와 인구규모, 산업 및 경제 특성에 맞춘 분석틀이 될 것이다.

- 충남도는 충남 연해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립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5~2030)’에 제시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자력 추진 가능한 사업과 국비사업으

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중국 산둥성의 ‘남색경제’ 추진전략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중국의 해양경제발전정책 관련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틈새 찾기와 전략적 제휴 모색을 위한 대(對)중국 교류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3농’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정책은 중국정부와 충칭남도 모두가 중시하는 문제이므로, ‘3농’ 문제를 연결고리로 한중간 지방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 및 강화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 충칭남도는 안희정지사 취임 이래 ‘3농혁신’을 주요 도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고,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2~1986년까지 연속 5년간, 그리고 후진타오(胡锦涛) 집권 시기인 2004~2016년까지 연속 13년간에 걸쳐서 매년 년초에 발표·하달하는 ‘중공중앙 제1호 문건’의 주제를 모두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관련 주제로 발표하고 있을 정도로 ‘3농’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 따라서 충칭남도와 15개 시·군이 대(對)중국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결고리로 3농 관련 정책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기초로 중국의 교류 파트너 성, 시·현 지역과 관광, 통상, 투자유치 방면으로 연결·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충남연구원이 조직, 매월 개최하고 있는 ‘충청중국포럼’ 활동을 확대, 활성화 하면서, 우선 년 1회 정도 중국측 교류파트너 성, 시·현과 사업단위의 공무원과 국유기업 간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삼농(三農) 및 농촌체험관광, 농어업 6차 산업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 관련 정책성공사례 경험 등을 연결고리로 하여, 대(對)중국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보다 적극적으로는,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작 지원과 대(對)중국 연구와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가칭)‘한중교류센터’와 ‘중국아카데미’ 설립 운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도립대학이나 공무원 연수원 기능과 연계·확충

을 전제로, 중국내 관광 또는 해양 전공 관련 유명대학과의 합작을 통한 관광, 해양 관련 전공 특화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동시에, 정책연수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과 지방 차원의 한중 교류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강화해 나가는, 충남 특색의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운영-확대 발전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 중국의 역대 5개년 계획 수립배경과 특징(1)

— 개혁개방 이전 ‘1·5계획’, — ‘5·5계획’



## ◆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1)

– 개혁개방 이전: ‘1·5계획’(1953~57)~‘5·5계획’(1976~80)

### ● ‘1·5계획’(一五計劃: 1953~1957)

- ‘1·5계획’(1953~57)은 1955년 7월, 중공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다.
- 계획의 핵심내용은, 주요 역량을 집중하여, 소련이 원조 설계해준 156개 대형 건설항목을 중심으로 하고, 694개 대중형 건설항목으로 구성된 공업을 건설하고, 중국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 산업구조 측면에서 ‘156개 대형항목’에 대한 고려는, 첫째, 조선전쟁 폭발후의 국제형세와 극심하게 박약한 중국 국방공업문제를 긴박한 지위에 놓았다. 둘째, 구중국의 공업기초가 매우 박약하고, 이미 공업화과정중 병목부문이 있었다. 셋째, 원래의 공업기초 이용과 함께 전쟁준비와 과거의 불균형한 지구간 배치문제를 중시했다.
- ‘1·5계획’ 집행과정중 두 번의 과도하고 맹목적 밀어붙이기가 있었으나, 결국 조정되었고, 1957년에 계획이 규정한 임무를 초과 완성했다. 계획에 규정한 목표는 공업총생산액 연평균 14.7% 증가, 농업총생산액 연평균 4.3% 증가 등이었다.
- 1953년말, 안산(鞍山)강철공사 대형강철압연공장 등 3대 공정을 완공하고, 생산을 개시했고, 1956년에는 중국 최초의 비행기제조장에서 제1호 제트비행기 시험제조에 성공했다. ‘1·5계획’시기는 중국 근대이래 규모최대, 효과 최고의 공업화 시기였다.
- 개혁개방 이전에 수립 시행한 1953년부터 1980년까지의 5차례의 5개년계획과 비교하면, ‘1·5계획’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을 실현했고, 또한 공업화의 초석을 다졌다. 미국학자 페어뱅크가 저서인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경제성장 수치로 보면, ‘1·5계획’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국민수입 연평균 성장률 8.9%(불변가격으로 계산)는, 1950년대 대다수 신생 독립국의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 2.5%내외와 비교해도 그렇다.”

- 단, 사회주의 개조 전변(轉變) 요구가 조급하고, 과도하게 빨랐고, 형식은 획일적이었고, 업무추진은 거칠었다. 1957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다시 ‘대약진(大跃进)’의 물결에 휩쓸렸다.
- ‘1·5계획’ 목표 설정과 계획추진에 대한 당시 중공중앙의 의견은 마오쩌둥(毛泽东)의 대담한 낙관론과 저우언라이(周恩来)의 신중론으로 대별되었다.

### [‘1·5계획’ 시기 어록]

- 현재 조급한 조짐이 보이는 데, 이는 주의해야 한다. 사회주의 적극성을 손상해선 안되지만, 현실가능성을 초과하고 근거가 없는 일을 함부로 제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지도자의 두뇌가 과열되면 찬물로 씻으면 맑아질 것이다. 각 부서 전문회의가 제출한 계획수치가 모두 매우 크다. 여러분 모두 실사구시(实事求是)에 주의하기를 부탁한다.(周恩来, 1956. 2)
- 이처럼 많은 사람과, 이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이처럼 풍부하고, 게다가 사회주의를 한다고 들었고, 우월성도 갖추었다고 들었는데, 50~60년 추진한 후에도 미국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너는 대체 뭐냐? 지구의 적(籍)을 박탈당해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 (毛泽东, 1956. 8)

### ● ‘2·5계획’(二五計劃: 1958~1962)

- ‘2·5계획 건의’(关于发展国民经济的第二个五年計劃的建议)는 중공중앙의 ‘건의’ 형식으로, 1956년 9월에 중공 제8차 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그후, 지도방침의 변화로 인해, 각 년도의 계획지표가 부단히 대폭 조정되었으므로, 정식 계획문건을 공포할 수 없었다.
- ‘2·5계획’(1958~1962) 기간은 실시과정중의 큰 파동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2개 단계로



구분된다. 1958~1960년은 ‘대약진(大跃进)’단계와 1961~1962년 조정시기 진입이다.

- 1958년 ‘대약진’은 1957년 정풍(整风) 반우파운동(反右运动)후 “경제건설 고조” 요구 제출에 따라 출현한 것으로, 층층이 과다한 압력과 허위과장보고를 포함한 한판의 정치운동을 형성했다.
- 중공 8차 전국대표대회(1956. 9) 이후, 중공중앙은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건설 열기를 과열시키고, 목표 조기달성을 요구하면서, 1957년에 작성 제출된 ‘2·5계획 건의’를 보류하고,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 목표와 임무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 일부 공장과 농촌에서 시작된 과도한 생산목표 설정과 허위과장보고가 극좌정치운동 속에 중국대륙 전체로 확대되었고, 중공 8기 2차회의(1958. 5) 이후에는 마오쩌둥(毛泽东)의 주도하에 ‘대약진(大跃进)’운동이 전국 범위에서 발동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과 강철생산 등 주요 계획지표들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고, 실제 조건과 능력으로부터 엄중하게 이탈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소련의 원조계약 파기로 인한 영향까지 겹치면서 중국경제는 곤경에 빠졌다.
-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운동은 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하면서, 공농업 생산과 건설에서 급속을 추구했다. 예를 들면, 강철과 기타 주요 공업생산 방면에서, 영국 추월에 필요한 시간을 원래 15년이라 설정했으나, 이를 3~5년으로 수정 단축했고, 미국도 10년 내에 따라잡는다고 목표기간을 수정했다. 중국 각 지방에서 군중동원을 통한全民大炼钢铁(대제련)운동이 전개된 때가 바로 이 기간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전국 농촌에서 ‘인민공사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실험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과 1개월 조금 더 지난 1958년말에 중국 전국의 74만개 농업합작사가 2.6만개의 ‘인민공사’로 합병되었다.
- ‘2·5계획’ 시기는 “약진”을 못한 데에 그치지 않고, 신중국 성립 이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가장 심각하고, 곤란이 가장 크고, 인민생활이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 경제의 파동폭이 가장 컸던 시기로, 경제성장율이 32.2% 증가에서 31% 감소까지 기복을 보였다. 공업생산액은 최고 54.8% 증가, 최저 38.2% 감소였다. 국민소득은 평균 14.5% 감소했고, 전민소유제 직공 평균임금은 5.4% 감소했다.

- 1962년말 ‘2·5계획’ 집행결과와 원래 제출한 ‘건의’의 목표지표와 비교하면, 석탄, 원유, 발전량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양식, 면화 등이 모두 목표량에 미달했고, 심지어 양식과 면화 생산량은 1952년 보다는 낮았다.
- 결국 중공중앙이 1960년 9월에, 국민경제에 대해 “조정, 공고(鞏固), 충실, 제고(提高)”의 “8자 방침”을 제출했다.

### [‘2·5계획’ 시기 어록]

“1958년 가을에, 국가계획위원회 간부가 허베이성(河北省) 쉬수이(徐水)에 가서 공산주의 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농민에게 1무당 양식생산량을 묻자, 농민은 두 번째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묻자, 입으로 간판상의 800근을 가리켰다. 다시 800근을 생산할 수 있냐고 묻자, “그 안에 짚과 줄기를 포함한다”고 대답했다.”

“1959년 1월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농업부가 쉬수이(徐水)에 고구마를 이용한 주정(酒精)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을 고구마도 이미 없었다.”

“농업생산뿐 아니라, 당시에 요란법석을 떨며 추진한 강철대제련(大炼钢铁)운동도 그랬다. 가령, 계획위원회의 간부조차도 철사망을 조각조각 잘라서 철덩어리로 제련해 냈다. 결국 유용한 철을 쓸모없는 철로 제련한 것이다.” (柳隨.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의 회고)

### ● ‘3·5계획’ (三五計劃: 1966~1970)

- ‘3·5계획’ 기간은 본래 응당 1963~1967년이어야 했으나, 마오쩌둥이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과도(过渡) 단계로 설정하고, ‘2·5계획’기간중의 혼란과 충격을 조정하고, 1966년부터 ‘3·5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3·5계획’ 계획기간이 1966~70년으로 되었다.
- 1964년, 국무원이 공업교통과 농업의 장기계획회의를 개최하고, ‘3·5계획’의 방침, 임

무, 주요지표 등에 대해 토론·연구를 진행했고, 이 기초위에서, 국가계획위원회가 ‘3·5계획’의 초보구상을 제출했다.

- ‘3·5계획’의 주요임무를, ①농업의 적극적 발전, 인민의 의식(衣食)문제 해결. ②첨단 기술 돌파 노력, 국방건설 강화. ③교통, 상업, 문교 및 과학연구 등 사업의 발전이라 규정했다.
- 그러나,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3·5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1967년과 1968년,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수입 모두 하락했다.
- ‘3·5계획’ 지도사상은 “먹기, 입기, 쓰기(吃穿用) 해결”에서 시작했으나 ‘3선(三線)’ 건설로 대표되는 전쟁준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총체적으로 말하면, ‘1966년 상승 - 1967/1968년 하락 - 1969/1970년 상승’의 기복이었다. 1966년에는 2년 앞서 계획목표 조기달성을 예측할 정도로 양호한 발전추세가 진행되었으나, 1967년, 1968년 ‘문화대혁명’ 발발로 계획 추진이 지체 또는 취소됐고, 국민경제가 붕괴직전 상황까지 갔다.
- 1968년은 계획경제를 건립한 이래 유일한 연도(年度)계획이 없는 해가 되었다. 1969년, 중소 국경 무장충돌 발생은 중국전국을 전쟁준비 파도 속으로 진입시켰다.
- ‘3·5계획’은 전쟁준비라는 비정상상태로 이전 3년간의 무정부주의 비정상상태를 대체했다. 아무튼 1970년의 고투입을 통해서 ‘3·5계획’이 완성되었다.

### 【“먹기 입기, 쓰기(吃穿用)”에서 “3선건설”로】

196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3·5계획’의 기초는 “먹기 입기, 쓰기(吃穿用)”였다. 3년 곤란시기로 부터 헤어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형세가 극도로 열악했으므로, ‘3·5계획’의 초보구상은 일반백성의 생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오는 당시, 국가계위 주임 리푸춘(李富春)의 ‘3·5계획’의 초보구상에 관한 보고를 듣는 중간에, “각급 계획위원회는 공업 위에만 엉덩이를 걸치는 문제를 필히 극복해야 한다. 우선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과 지

원계획을 확실히 옮겨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마오의 사고가 바뀌었다. 그 이유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가 마오쩌둥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 내용 때문이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는 국가경제건설과 국방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발견한 문제중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 있다. 전국의 공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인구가 과다하고, 주요 교통결절(枢纽)과 항구 등이 대중도시 및 그 부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가보위전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문제이다. 따라서, 국무원이 전문소조를 조직해, 국가경제상 가능한 상황에 근거해, 실행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당시의 국내외 긴박한 정세를 보고서 각주로 달았다. 1960년 초, 타이완의 장제스(蔣介石)정권이 끊임없이 군사행동을 일으키고, 대륙을 공격한다고 호언하고 있었고, 중소관계가 경직되어, 소련조차 중국의 빈틈을 노리는 상황이었다. 중공정권을 적대시 해온 미국은, 1961년 9월, 중국을 가상 적으로 하는 대형 핵전쟁연습을 진행했고, 또한 중국의 핵개발 시설에 대한 무장공격 작전을 비밀리에 작성하고 있었다. 또한, 1962년 10월에는, 인도와 국경분쟁이 발생했다.

이 보고가 마오의 사고를 바꿨다. 1964년 6월 6일, 마오가 중앙공작회의에서 ‘3선건설(三线建设)’ 실시를 명확하게 제출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참모장이 아니므로, 그들이 언제 전쟁을 하려는 지 알 수 없다. 3선 공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1선, 2선에도 일정한 군사공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 성(省) 모두 군사공업을 보유하고, 스스로 소총, 기관총, 경중기관총, 박격포, 실탄, 폭약을 생산해야 한다. 이 같은 물건들이 있으면 안심이다.”라 말했다. 이때부터 중국 전국에 전쟁준비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3선건설”이 전면적으로 발동되었다. (끝)

● ‘4·5계획’ (四五計劃: 1971~1975)

- 1970년 2월 15일~3월 21일, 전국계획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에서 1970년 계획과 ‘4·5계획 강요(草案)’을 중점 토론했다.
- 이후 수정작업을 거친 ‘4·5계획강요(초안)’이, 1970년 8월 23일~9월 6일 기간에, 장시성(江西省) 루산(廬山)에서 개최된 중공 9기2중전회에서, 회의참고문건으로 인쇄 배포되었다.
- ‘4·5계획 강요’는 최종적으로 여전히 “초안”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기본건설투자, 재정수지, 물자분배 3대 도급(包干) 실행 요구 내용을 추가했다.
- ‘강요(초안)’ 확정의 주요 임무는 전쟁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고, 강대한 전략후방으로 ‘삼선(三線)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배치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농업의 적극 발전과 농업 기계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철강, 군사공업, 기초공업 및 교통운수 건설을 강조했다.
- 긴장된 국제형세와 국내 “문화대혁명”의 영향 하에, ‘4·5계획’은 맹목적으로 고속도와 고지표를 추구하여, 1970년대 초기에 국민경제에 “3개 돌파(三个突破)”가 출현하는 심각한 통제불능 상태가 초래되었다. 직공수는 5000万人을 돌파했고, 봉급 지출 300억위안 돌파, 양식 판매량 800억근 돌파했다.
- 1971년 9월 21일, 마오의 후계자이자 부주석이었던 린뱌오(林彪) 부부와 그의 아들이 국외로 도망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외몽고 초원에 추락한 사건(“9.13 사건”) 발생 이후 린뱌오집단이 정리된 이후부터,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중앙의 업무를 주도했고, ‘문화혁명’과 과도한 전쟁위협 강조로 인해 조성된 폐단과 극좌사조(極左思潮)를 비판하면서 경제조정을 진행했다.
- 1972년 2월, 전국계획회의에서 저우언라이의 주도로, 국가계획 강화, 기업관리 정돈, 각항 정책의 구체화, 무정부주의 반대 등을 포함한 일련의 중요 조치를 제정했다.
- 중공중앙은 두 차례 ‘4·5계획’의 고지표를 수정하고, 전쟁준비 중심의 전략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경제효익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연해지구와 3선지구를 함께 중시하면서, 대규모 ‘3선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 1973년 7월 1일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중공중앙공작회의가 ‘4·5계획’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근거로, ‘4·5계획’ 경과강요(수정안)을 작성했다.
- 1975년 덩샤오핑(邓小平)이 주도한 정돈공작을 거친 후, ‘4·5계획’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단, 주요 경제지표 중 절반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 ● ‘5·5계획’ (五五规划: 1976~1980)

- ‘5·5계획’은 개혁개방 이전의 지령성 계획경제체제 시기에 수립된 마지막 5개년계획이다.
- 1975년, 중공중앙이 ‘1976~1980년 국민경제발전 10년 계획(规划) 강요(초안)’을 제정하고, ‘5·5계획’을 안배했다. 이 계획은 전문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6·5계획’과 함께 작성되었다.
- 계획수립작업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독립된 별도 문건은 없고, ‘1976~1985년 국민경제발전 10년 계획(规划) 강요’중에 포함되었고, 이 ‘강요’가 1977년 12월에 공표, 하달되었으므로, 실제 계획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 ‘5·5계획’ 시기에는 계획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고, 계획의 제정과 실시에도 그에 수반한 변화가 있었다.
- ‘5·5계획’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쳤다. 첫째, 1976년, 마오쩌둥 서거 이후 1978년 중공 11기3중전회 이전까지 시기에는, 마오의 후계자로 ‘4인방’을 제압을 주도한 화궈펑(华国锋)이 경제업무에서 무모한 방침을 계속 추진했고, 이로 인해, 진정되어 가던 광열(狂熱)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약진(新躍進) 추진’ 주장도 나타났다. 둘째,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후 개최된 중공 11기3중전회(1978. 12) 이후, 국민경제 전면 조정과 ‘5·5계획’ 지표를 비교적 큰폭으로 조정했다.
- 1980년말부터, 국민경제 주요 비례관계와 생산과 건설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기본건설투자가 과거 28년 간 총합에 상당하여, 매년 700억위안을 투자했다. 이는 실제가능한도를 초월했고, 경제발전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다.
- ‘5·5계획’ 집행상황으로 보면, 1977~1978년 기간에 사회총생산액, 공농업총생산액, 국

민수입이 2년간 연속 대폭 증가했고, 주요 공농업산품의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또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초과했다.

### [ ‘5·5계획’ 시기 ‘신(新)약진 추진 주장 배경]

1976년 9월, 마오쩌둥 서거 직후에, ‘4인방’을 제압한 이후, 마오의 후계자인 화궈펑(华国锋)의 명망은 전에 없이 높아졌고, 그에 대한 숭배풍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화궈펑은 경제업무에서 “크게 빨리”, “혁명에 사력을 더하자”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이제 막 진정된 광열분위기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초래되었고, ‘신(新)약진 추진’ 주장도 나타났다.

아래는, 그 같은 분위기를 선동한 당시 인민일보의 사설 제목이다.

“하나의 새로운 약진형세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인민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영웅기질이 있다.”

“오직 1년, 2년의 고속도로는 안된다. 필히 매년 고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한 부문, 두 개 부문 정도의 고속도로는 안된다. 필히 각 부문 모두 고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1977, 1978, ‘人民日报社论’)

※ 개혁개방 이후, ‘6·5계획’(1981~85)~‘12·5계획’(2011~2015)까지는 다음호(제 7호: 2016년 3·4월호)에서 이어집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이중화.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과 제주의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2015. 12.14

中共中央黨校經濟學教研部編著. 2015.11. “十三五”規劃〈建議〉八講,人民出版社

中共中央关于制定十三五规划的建议(全文), 新华社, 2015. 11.3

山東省區域發展戰略推進辦公室홈페이지: <http://www.sdlb.gov.cn/col/col352/index.html>

历届五年计划回顾, <http://www.chinadmd.com>, 2016. 1.6.



허베이  
산동통신

# 허베이-산동통신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유광철 · 박인성





## 시진핑 주석 신년사, 2016년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시기

- 지난 2015년 12월 31일 저녁,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이 자신의 중난하이(中南海) 집무실에서 2016년 신년사 발표했다.



〈그림 1〉 시진핑 주석 2016년 신년사 발표 모습

- 이 날 신년사에서, 시 주석은 2015년 중국의 최대 성과로 반부패 척결 및 사법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의 적극적 추진과 12.5 계획(2011-2015)의 원만한 마무리를 꼽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시 주석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권 획득, C919 대형여객기의 독자개발, 인민폐의 국제통화기금 통화 바스켓 특별인출권 획득 등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성과로 강조했다.

- 한편, 시주석은 2016년을 ‘전면적 소강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라면서, 도시빈민과 농촌 빈곤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전면적(全面的) 소강(小康)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창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토대로, 체계화된 개혁과 개방, 사회의 공평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세계는 넓고, 문제도 많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전 세계가 중국식의 문제해결 방안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한해 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의 구체적 성과 도출, UN 2030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참석,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포용적 손길을 내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구촌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신년사는 2015년 신년사에서 제기했던 중국 국내 인프라 확충, 지역 간 균형개발, 반부패 척결 활동 등 정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계층 간 균형발전과 소강(小康)사회 진입을 위한 질적 발전의 실천의지를 강조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했다.



## 베이징 미래도시 정책

- 지난 1월 20일과 22일 각각 2016년 베이징(北京) 양회(两会)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1) 대기환경보호, 2) 베이징의 인구 통제, 3) 통저우 행정도시의 건설 및 베이징 교통문제의 해결, 4) 베이징시 중심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유산 보호 등 베이징시 일반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 대안들이 논의됐다.

- 대기환경보호

- 2015년 베이징(北京)은 전승기념일 열병식 날 푸른하늘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반면에, 처음으로 대기오염 홍색경보를 발령하는 등 중증 대기오염을 보이기도 했다.
- 이에 대해, 베이징 시 정부는 2015년 말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생태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홍색경보가 난 “징진지(京津冀) 지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에는  $73\mu\text{m}/\text{m}^3$ 까지 통제하고, 2020년에는  $64\mu\text{m}/\text{m}^3$ 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공기정화 5개년 행동계획《北京清洁空气五年行动规划》”을 통해 2017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를  $60\mu\text{m}/\text{m}^3$ 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림 1〉 베이징의 푸른 하늘

## ● 베이징시 인구 통제

- 12.5 계획기간(2011-2015) 중 베이징시 인구증가는 연평균 37.5만 명으로 비수도 기능의 원만한 이전과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11.5 계획기간(2006-2010)의 연평균 50만 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 이에 베이징 13.5 계획(2016-2020)에서는 2020년까지 베이징시 상주인구를 2,300만 명 이내로 통제하고, 특히 시구(市区) 6개구의 상주인구 목표지표는 2014년의 85%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 이 외의 평원지역은 베이징 도심의 과밀한 수도기능의 이전지구로서 기능하게 되며 먼터우거우(门头沟)구, 화이러우(怀柔)구, 미원(密云)구 등의 지역은 생태환경보호구 및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 통저우(通州) 행정 도시의 건설 및 베이징시 교통문제

- 베이징시 정부는 각 행정기관들이 통저우로 이전할 경우, 베이징 도심과 통저우 신도시 간에 발생할 심각한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주구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로, 통저우(通州)구 행정구역 내에 2017년 개원을 목표로 9,600병상 규모의 대규모 공립병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베이징 시내 대학 분교의 설치를 추진 중이며, 도심지역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간선철도, 버스 등이 연계된 복합 환승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 또한, 베이징 5환 이내에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규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기업체 본사의 베이징으로의 신규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형승용차와 전동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림 2〉 베이징의 교통혼잡

## ● 베이징(北京) 시 도심지역의 역사문화 유산 보호

- 시정부 청사를 비롯한 구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많은 기관들이 통저우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적지에 대한 재개발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이는 곧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 유산들의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 1990-2013년 사이 베이징시 구도심 내 옛 골목(胡同) 639개가 철거되었으며, 이는 이전 40년 간 철거된 후통(胡同)의 3.1배에 달한다. 또한 베이징 구도심 도시전통풍치지구(北京旧城传统风貌区)이 구 도심지역의 19.8%를 차지한다.
- 이러한 가운데, 시(市)정부는 “비(非)수도기능의 이전 추세에서의 구도심보호업무《疏解非首都功能形势下的旧城保护工作》”를 제출하면서, 동청구(东城区)·시청구(西城区) 합병을 통한 베이징중앙구(北京中央区)의 신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과학화된 도시계획과 문화유산보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티엔안먼(天安门)지구, 왕푸징(王府井)지구 등을 문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의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 ●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신상태(新常态)전략과 더불어,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일체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인구, 교통, 환경, 공간구조, 문화유산 보호 등 도시관리의 각 영역마다 선진적인 정책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 집행 단계에서 그 정책목표에 얼마나 근접할지,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나타날 문제점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허베이성, 식품의약품 안전감독업무의 4대 키워드

- 2015년은 허베이성의 식품의약품 안전감독업무에 대해 12.5 계획을 마무리하는 한 해로서,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한 중요한 시기였다. 허베이신문망(河北新闻网) 돌파(突破), 시범사업(试点), 협동(协同), 서비스(服务)를 2015년 허베이성 식품의약품 안전감독업무의 4대 키워드로 선정했다.
- 돌파(突破) : 관리감독체제 개혁과 관련 법제의 정비
  - 허베이성은 2015년 식품의약품의 안전감독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 문제발견, 2) 위험통제, 3)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규정, 4) 문제발생시의 응급조치방안의 4대 항목으로 구성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60여 항의 제도를 정비했다.
  - 《허베이성 식품생산가공업 및 음식물 노점 관리조례(河北省食品生产加工小作坊和食品摊贩管理条例)》, 《시·현·향 식품의약품 관리감독능력 전문화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河北省食品生产加工小作坊和食品摊贩管理条例)》 등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향후 기층 단위에서의 식품의약품의 품질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험사업(试点) : 관련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범사업
  - 허베이성은 전국식품안전도시 혁신 4대 실험지역의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성(省)정부는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장자커우(张家口)가 포함된 범위를 지역을 식품의약품 안전감독혁신실험구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은 2015년 초와 7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국무원(国务院) 식품안전판공실(食品安全办)과 합동으로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국가농산물품질 안전 현(县) 선정 사업에서는 웨이창(围场), 량핑(梁平), 위티엔



(玉田), 차오페이디엔(曹妃甸) 4곳에 혁신시험단위를 건설했다.

- 한편, 2015년 약품허가소지인 제도 시장화 실험 성(省) 중 하나로 선정되어, 각 유관부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의약품 관련 기업 및 연구자가 특허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술의 특허권 심사 및 시장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보건식품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실험 성(省), 식품의약품안전신용체계건설 실험 성(省)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여러 혁신 사업들의 실험지역으로서, 현행 제도 상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림 1〉 불법 식품 제조 관련 삽화

● 협동(协同) :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의 거시적 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허베이성정부는 식품위원회 및 식품안전위험방지협회 등과 함께 각종 좌담회와 연석회 등을 개최하고, 민간식품업체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상향식 구조를 형성해 왔다.
- 식품의약품 안전 위반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제보 또한 증가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안전한 약품, 맛있는 음식(药安食美)”의 가입자 수가 11만명, 방문자수가 1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행정집행과 대중 여론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식품의약품감독업무를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의 거시적 구조 속에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과 공동으로 《징진지(京津冀) 약품생산감독공작합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지역의 안전감독업무의 효율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식품제조이력 추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服务) : 업무효율을 높이고, 안전감독에 관한 사고 방식을 전환한다.
  - 허베이성(河北省) 정부는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충실한 식품의약품 감독 업무 태도를 조성하고,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봉사의식을 강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 구체적으로, 감독권한의 구체화, 심사항목의 세분화, 심사기준의 표준화, 공무원의 업무 재량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을 통해 감독 업무의 과학화와 공정화를 추진했다.
  - 또한, 2015년 8월부터 인증업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 서류 및 절차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업무시간과 행정력을 크게 절감했다.
- 멜라닌 분유 파동, 가짜 계란, 비위생적인 노점상 음식 등을 통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절감해 온 중국인만큼,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으로의 청정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도내 농가 및 업체의 경우 향후, 더욱 까다로워질 검역 및 안전관리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동성, 2020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전자정부 구축

- 산동성(山东省) 정부는 2020년까지 성(省) 정부 및 성내 각 시(市) 정부의 행정업무의 약 98%를 클라우드컴퓨팅<sup>1)</sup> 방식의 전자 정부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13.5 계획’과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에서 사물인터넷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정부 각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행정업무 처리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 성 정부내 부서 간 업무특성에 따라, 전자정부화 진척상황에 차이가 있으나, 이미 성 정부차원에서는 업무심사, 각 행정업무의 책임자 공개, 각종 인허가 업무 신청 등이 가능하다.
  - 2016년에는 성, 시 현, 각급 정부의 업무 플랫폼을 통합하고, 각 급 기관의 행정허가업무와 공공서비스신청 관리 업무의 온-오프라인 간 결합을 통한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 또한 산동성 재정청(财政厅)이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구축에 3800만 위안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해당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 현재 이미 ‘산동랑후공사(山东浪潮公司)’가 플랫폼의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公安, 민정, 계획생육(计划生育), 상공업 등의 부문에서 47개 항목, 약 200만 건 업무가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처리된 바 있다.
  - 한편, 이에 대해 산동성 재정청 경제건설처 강룡(康龙) 처장은 “정부서비스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조성은 각 부문 간 업무체계를 전시하는 하나의 무대와 같다면서, 행정자원 이용의 집약화를 통해 일반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출처 : 네이버 백과).



## 옌타이시 푸산구 13.5 계획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현대적 명품도시 조성

- 전국 단위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이 발표된 이후, 각 기층 단위 지역 차원에서의 13.5 계획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산둥성(山东省) 옌타이시(烟台市) 푸산구(福山区)는 2020년까지 1) 세계 500대 기업 투자 유치 50건, 2) 신형 제조업 기업 220개, 3) 산업 간 융·복합형 발전 4) 연평균 1인당 주민소득 11.7% 성장, 5) 공립학교 신규 건설, 의료 서비스 개선, 양로서비스 강화 등 주민 복지서비스의 개선 등 주요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그림 1〉 푸산구 위치도

- 1) 세계 500대 기업 투자 프로젝트 50건 유치
  - 푸산구(福山区)는 향후 5년 간, 1·2·3차 산업 간의 협력적 발전을 통해서 선진제조업, 현대적 서비스업과 고효율의 생태농업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키고, 지구내 총생산액을 연평균

10.7%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 밝혔다.

- 이를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혁신적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고,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각 투자기업의 부지수요에 맞추어 5곳의 대규모 산업부지를 마련하며, 이곳에서 파생될 2차 창업 기업들을 위한 부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업종별로는 자동차, 장비제조업, 전자상거래, 3D 프린팅 등 기존의 제조업과 첨단 산업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500대 기업의 투자프로젝트를 50건 이상 유치하는 것이라 밝혔다.

## ● 2) 신형 제조업 기업 220개 육성 및 산업 간 융복합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 13.5 계획 기간 중, 푸산구(福山区)는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장비제조업 등 기존의 주요 산업을 기반으로, 신소재, 생물의약, 신에너지의 3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202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에서 신형 제조업 부문의 비중 20% 이상, 해당 업종에서의 규모이상 제조업 기업 220개 이상을 육성한다.
- 한편, 계획 기간 중, 제조업, 농업 등과 융합하여, 각 산업 부문의 발전이 이종(異種)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 3) 살기 좋기 일하기 좋은 현대화된 명품 도시의 건설

- 각종 산업 및 지역발전의 최종 목표는 민생이며, 계획기간 중 평균적으로 1인당 주민소득이 연간 11.7%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1고·2안·3개 신도시(1庫·2岸·3坐城)’의 전략을 제시했다.
- ‘1고(庫)’는 남안지역의 상수원과 서안지역의 임항공업단지, 북안지역의 중심도시 간의 도로체계를 완성하는 토목사업을 가리키며, ‘2안(岸)’은 친수형 관광 회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남쪽의 상수원지역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따하이(大海)’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또한, 3개 신도시(坐城)는 녹색, 생태를 핵심으로 하는 남부생태 신도시, 비즈니스와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무역신도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신도시 건설이다.



〈그림 2〉 푸산구 3개 신도시 배치도

#### ● 4) 교육, 의료, 양로 등 각종 생활 시설의 건설

- **교육**: 지역 내에 각급 학교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공립유치원을 추가 설치하고,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유치원교육과정의 표준화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상하이 교통대학과 공동으로 공립 영어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사립학교의 신설도 허가하여 대중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 **의료**: 산둥성 동부(魯东)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질병예약 체계를 갖추며, 모자보건센터와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건설을 완성한다. 또한, 전문 의료진을 초빙하고,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스마트 진료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양로**: 사구(社区)양로, 가정(家庭)양로, 기업과 비영리 조직에 의한 양로서비스의 3가지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더욱 많은 민간 조직들이 양로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

1) 엔타이시 등 산둥성 일대에서 두루 사용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뜻의 한자의 중국어 음차를 사용한 명칭이다.



획이다. 또한, “89000(拨就灵灵灵)”<sup>1)</sup> 등 민생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양로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3〉엔타이시(烟台市) 89000 홈페이지(위)와 라이산구(莱山区) 89000 홈페이지(아래)





## 텐진, 칭다오 등 28개 도시에서 4월부터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 그 동안 중국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의무 학습기간과 면허발급대기기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작년 11월,公安部(公安部)가 交通运输部(交通运输部)와 공동으로 《자동차운전자 양성 및 시험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올 4월부터 제반 기준을 충족하는 28개 도시에서 비영리성 소형차 면허에 한정해 운전 교습을 (학원뿐만 아니라) 경력 5년 이상 기 면허취득자에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조치가 시범적으로 취해지는 28개 도시는 각각 텐진(天津), 칭다오(靑島), 바오터우(包头), 창춘(長春), 푸저우(福州), 지안(吉安), 닝보(寧波), 마안산(馬鞍山), 난징(南京), 우한(武漢), 난닝(南寧), 청두(成都), 치엔둥난(黔東南) 자치주, 따리(大理), 바오지(寶鷄) 등이 선정됐으며, 각 도시의 교통환경의 양호성과 시(市)정부의 교통 질서에 대한 관리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교습자는 면허 취득 후 무사고 5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마약투여 경력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추첨을 통해 교습 희망자에게 배정된다.
  - 또한, 면허취득희망자는 운전교습과 면허시험에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2014. 12. 31. 国家主席习近平发表二〇一五年新年贺词
2. 2015. 6. 6. 新京报“北京新机场线开始面向公众征求意见 全长43公里”
3. 2015. 6. 22. 中国城市管理学会 内部资料
4. 2015. 7. 1. 济南网.“济铁”七一”调图直达18大城市 增开至福州贵阳高铁”
5. 2015. 7. 1. 中国新闻网. “河北投资90亿建北京新机场 拟打造京津冀机场群”
6. 2015. 7. 4. 新华网. “7月增多趟高铁 国内游将更便捷”
7. 2015. 12. 31. 国家主席习近平发表二〇一六年新年贺词
8. 2016. 01. 05. 新华社. 电子政府走向云端 山东公布政务云平台时间表
9. 2016. 1. 30. 中国城市规划网.“北京未来什么样?”
10. 2016. 2. 2. 中国河北新闻网.“2015年河北食品药品安全监管工作4大关键词?”
11. 2016. 2. 04. 福山区十三五规划: 打造宜业宜居的现代精品城市·胶东在线
12. 2016. 2. 09. 新华网“16地4月起试点驾照自学直考·全国范围内可替换驾照证”

대중국  
교류 동향

# 도 · 시 · 군 대(對) 중국 교류 동향





## 태안군, 산둥성 일대 지방외교 활동 본격 추진

- 한상기 군수를 대표로 하는 태안군 중국 방문단이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산둥성 타이안시(泰安市), 옌타이시(烟台市), 웨이하이시(威海市) 일대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도시인 타이안시(泰安市)와의 교류 확대 방안 협의, 관광·수산 분야 교류 방안 모색 등의 교류 활동과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 현지 상황 등에 관한 조사 및 현장답사 활동을 진행했다.
- 이번 중국 방문활동에는 한상기 태안군수를 대표로 박남규 태안군의회의장, 뿐만 아니라, 김진환 기획감사실장, 노춘민 해양수산과장, 양수준 관광산업팀장과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 등이 동행하여, 관광,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그림 1〉 타이안시 고신개발구 시찰 모습

- 이번 방문을 통해, 타이안시(泰安市)에서는 고신개발구 및 태산, 옌타이 평라이시(蓬莱市)에서는 경로어업 유한공사, 웨이하이 룡청시(荣成市)에서는 룡옌항(龙眼

港) 시설에 등에 대한 현장답사와 향후 태안군과 룡청시 간의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특히, 타이안시에서는 리홍평(李洪峰) 당서기 주최 만찬과 타이안시장 주최 만찬을 통해 ‘泰安’이란 명칭을 공유한 두 도시간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했고, 엔타이시의 현급시(县级市)인 평라이시(蓬萊市)에서는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과 더불어, 문성와이너리와 봉래경로어업 유한공사 등 규모화된 농업시설과 어업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 또한, 웨이하이 룡청시와는 대산항-룡옌항(龙眼港) 간 항로 개설에 따른, 각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해양식품 전시센터를 방문했다. .



〈그림 2〉 태안군- 평라이시 교류 의향서 체결 모습



〈그림 3〉 문성 와이너리 시찰 모습





## 보령시, 중국 후베이성 마청시 현황조사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 보령시는 지난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후베이성 (湖北省) 마청시(麻城市)를 방문하여, 도시현황 및 상생협력발전 사항 조사와 더불어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투자유치와 보령 머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 이번 활동은 보령시 옥계초등학교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마청시 보다학교(博达学校)의 건의에 따라 마청시가 보령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림 1〉 보령시 방문단 기념사진

- 이번 방문을 통해, 진달래 축제가 개최되는 구이평산(龟峰山) 풍경구, 마청시에서 한양촌을 건설·운영 중인 한국인 사업과 최덕기 사장과의 면담, 마청시 관내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공장 시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 특히, 마청시의 진달래 축제장에 보령 머드체험장을 설치하고, 보령 머드축제와 마청 진달



래 축제에 상호 체험단을 파견하는 등 관광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보령시 최철구 주무관은 “마청시가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천 해수욕장 및 머드 축제 등 바다를 주제로 한 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교류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조치들과 더불어 충남도와 중앙 차원에서도 투자이민제를 통한 영주권 문제의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편, 마청시는 후베이성 황강시(黄冈市)에 속한 현급시(县级市)로서, 우한(武汉), 정저우(郑州), 후페이(胡佩) 경제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120여 만 명이며, GRDP 248억 위안(2015년) 규모로, 후베이성 각 시 평균 GRDP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림 2〉 마청시 위치도

## 당진시, 올 6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공동으로 한중무역박람회 추진

- 당진시는 올 6월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단둥시(丹东市)에서 중한 국제 박람회를 단둥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6월 9일에서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귀먼완가구생활광장(国门湾家具生活广场)에서 개최되며,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 태국, 대만 등의 약 2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참가할 계획이다.
  - 한국 참가단의 규모가 100여개 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 27개, 인천 20개, 의정부 10개 등 전국적 규모이다..
  - 한편, 이번 박람회는 2015년 11월 김홍장 시장의 단둥시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2월에 단둥시 쑤지후(孙志浩) 부시장이 당진시를 답방하면서, 당진시와 공동개최가 결정됐다.



〈그림 1〉 단둥시 귀먼완 가구생활광장

- 이를 위해, 지난 1월 20일에서 2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조능호 당진시 대외 협력팀장을 비롯한 실무단이 현지실사 및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 현지실사에서 실무단은 당진시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부스 개수와 위치, 박람회 기간 반입상품에 대한 통관문제, 박람회를 위한 인천공항-단동 간 직항 노선 개통 문제, 홍보관 운영에 따른 통역지원 문제, 행사참가자들에 대한 숙식지원 문제, 행사기간 중 당진시 기지 줄다리기 공연장 마련 문제 등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 당진시는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숙식비를 비롯한 국외여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당진시는 방문기간 중에, 단동시와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향후, 박람회 기간 중 당진시-단동시 간 우호협력체결 및 단동시 무역촉진회와 당진상공회의소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에 합의했다.



〈그림 2〉 당진시 방문단의 실무회의 모습

- 박람회가 개최되는 단동시는 랴오닝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지급시(地级市)로서,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고, 북한과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국경무역이 발달한 도시이다.
- 인구는 245만명, GRDP는 1,022.6억 위안(2014년) 규모이며, 현재 SK 네트워크와 롯데마트 등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림 3〉 단동시 위치도



〈그림 4〉 단동시 행정구역도

문의 \_유광철 연구원 yookwang1234@naver.com, 041-840-1175

※ 자료 제공 \_태안군 박호성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당진시 대외협력팀 심장보 주무관

# 제 7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 ◆ 제 7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

###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 지난 1월 27일(수),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조원갑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남상훈 충남도 환황해 TF팀장,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왕하 공주대학교 중국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 7차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이경복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의 기조발제와 더불어, 충남에 산재한 환황해권 문화자산을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각 시, 군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 한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충남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중국 교류 관련 공무원, 연구원,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충청중국포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림 1〉 이경복 팀장 강연 모습



- 이경복 팀장은 “현실에서 사용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환황해권의 개념과 개별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다르다면서, 실질적 활용을 위한 개념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리적 측면에서는 제주도와 양쯔강 하류를 잇는 선의 이북지역을 지칭하며,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교역항로와 고고학적 증거들을 기준으로, 중국연안지역에서 동남아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적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또한, 중국의 바다는 북중국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구분이 되며, 북중국해의 경우, 산둥반도를 기준으로 이북지역인 발해(渤海)와 이남지역인 황해(黃海)로 구분된다 설명하면서,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황해’가 아닌 ‘북중국해’의 명칭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어, 충남과 중국과의 교류 역사에 있어서는 남북조시대 양나라와의 교류 관련 유산을 보유한 서산 및 서천을 포함한 금강하구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개발과 서산-부여 간 연계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산 대산항-웨이하이 룽옌항 간 여객선이 취항한다하더라도, 충남의 핵심적 관광지역인 백제문화권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관광객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태안반도와 금강하구지역, 공주부여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라면서, “문화적 유사성과 교역과 관련된 역사적 공통성을 토대로한 지역 정체성 확립이 향후, 각, 시, 군의 대중국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제 7차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지난 2월 24일(수) 광양자유무역청 양광식 팀장을 발표자로 모시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민원 유형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진행한, “제 8차 충청중국포럼 소식은 다음호에 실겠습니다.

※ 작성 : 2016. 2. 2. 중국연구팀 유광철

※ 문의 : 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



## 발간 목록

| 호수   | 발간월             | 주제                           | 비고  |
|------|-----------------|------------------------------|-----|
| 제 1호 | 2015년 6월        | 신실크로드 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 —   |
| 제 2호 | 2015년 7월        |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   |
| 제 3호 | 2015년 8월 · 9월   | 징진지 지구 일체와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 합본호 |
| 제 4호 | 2015년 10월       |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 —   |
| 제 5호 | 2015년 11월 · 12월 |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합본호 |
| 제 6호 | 2016년 1월 · 2월   |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 합본호 |